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음 1월 10일) 제22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 13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실시된 가운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의 주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주 특례시 지정, 균형발전의 필수

지방분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옛 선플라워워딩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김광수·안호영·정운천·오제세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및 학회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례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면에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만이 특례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 특례시 지정에서 소외하게 될 전주시를 비롯한 정주시, 성남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회복지, 보건위생, 건축,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와 2중행정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정부로부터 두배이상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할

###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 관련기사 4편

#### 포용국가를 위한 세미나서

#### 지방분권·지정 당위성 모색

#### 특례시 지정되면 전북도와

#### 2중행정 문제점 해소 효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청원 등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방소멸위기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울산광역시, 용인시, 창원시보다 3배이상 많고 사무증가로 행정처리 지연 등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광

역시인 울산시보다 오히려 2배이상 많다"며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전북도청 소재지로써 낙후된 전북지역발전의 거점이며 지역정책결정의 중심지이고 전북인구의 36%가 거주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주요기관이 집약돼 있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SKT, KT에서 통신데이터로 측정된 결과 하루 평균 실제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고있으며 특히, 전주한옥마을에는 3년 연속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문화 관광의 중추도시로써 준광역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발제자들은 각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등을 주제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전주시와 수원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행정·입법 전문가와 정치권 등에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내는데 얼마만큼 효력을 나타내게될지는 주목된다. /송효철 기자

##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전북대 김태완 교수

이차원 소재·금속 전극 간 높은 저항 걸림돌 문제 극복



에 대면적·고균일도 증착하고, 상변환(Phase transition)이 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제작한 것이다.

이차원 소재에 기반 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있어 이차원 소재와 금속 전극 간의 높은 저항은 개발에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기존 이차원 소재기반 반도체보다 100배 이상 성능이 좋은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을 전북대학교 김태완 교수(공대 전기공학과) 연구팀이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대는 김 교수팀을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소재인 이차원 소재를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고균일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고성능의 차세대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전북대 김태완 교수를 비롯해 영남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ACS NANO' (IF=13.709)에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반도체 소자는 이차원 구조의 전이금속인 '전이금속 디칼코겐이드(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소재'를 이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유기금속 화학 기상 증착장비(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이용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반인 웨이퍼

에 대면적·고균일도 증착하고, 상변환(Phase transition)이 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제작한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낮은 전력으로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구동 소자의 상용화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완 교수는 "이차원 소재 기반 차세대 반도체에 개발에 있어 다른 이차원 반도체와 금속 사이의 높은 저항은 항상 걸림돌이 돼 왔다"며 "쉽게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저항성이 매우 낮아 성능이 우수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좋은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익산시 흥역 확진환자 발생

### 전북도, 확산 방지 조치 나서

전북에서 첫 흥역 확진환자가 발생해 전북도가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섰다.

전북도 보건당국 등은 13일 익산에서 흥역 확진환자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최근 5일간 A모양(15)과 접촉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1일 발진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전주 한 대형병원에서 PRC 검사를 받은 뒤 흥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A양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다녀온 뒤 학원과 교회 등 지인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발열과 기침 등으로 익산 시내 한 병원과 전주의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양이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모니터링 하고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A양이 MMR 2차 접종까지 마쳤으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흥역 항체가 소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했다. /강석훈 기자

## '5·18 망언' 금지 제도화된다

여야4당,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발의 추진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12일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홀로코스트법) 발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법안은 특위의 법률팀에 소속된 박지원·천정배·김경진·이용주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를 추진

한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반민주 세력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역사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